

김규동 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

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국내·외 여행자 수는 증가 추세임. 2022년 국내여행보험 계약 건수는 2019년 이전 실적을 초과하였으며, 해외여행보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보험에 대한 수요변화가 관찰되는데, 해외의료비 보장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대표적임. 코로나19의 경험은 여행자들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보험회사들은 이를 반영한 상품 개선이 필요함

-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기준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종식을 선언하였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5월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되었음¹⁾
 - 우리정부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엄격히 관리하던 방역지침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완화하였으며,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위기상황 종식을 선언하였음²⁾
-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함께 국내·외 여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글로벌 여행시장의 회복은 항공 여행객의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발표³⁾에 의하면 RPK(Revenue Passenger Kilometer)로⁴⁾ 측정된 2023년 3월 총 교통량은 2022년 3월에 비해 52.4% 증가하였고, 2019년 3월 수준의 88.0%에 달하고 있음
 - UN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세계관광기구)는 2023년 유럽과 중동 지역의 국제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 세계 기준으로는 최대 95% 수준으로 회복될 것을 예상함⁵⁾
 - 우리나라의 여행산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인데, 국내여행자 수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며 해외여행자 수는 아직 회복이 더딘 상태임

1)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3. 5. 6),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2)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3. 5. 11),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 추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고 발표하였음

3) <https://www.iata.org/en/pressroom/2023-releases/2023-05-0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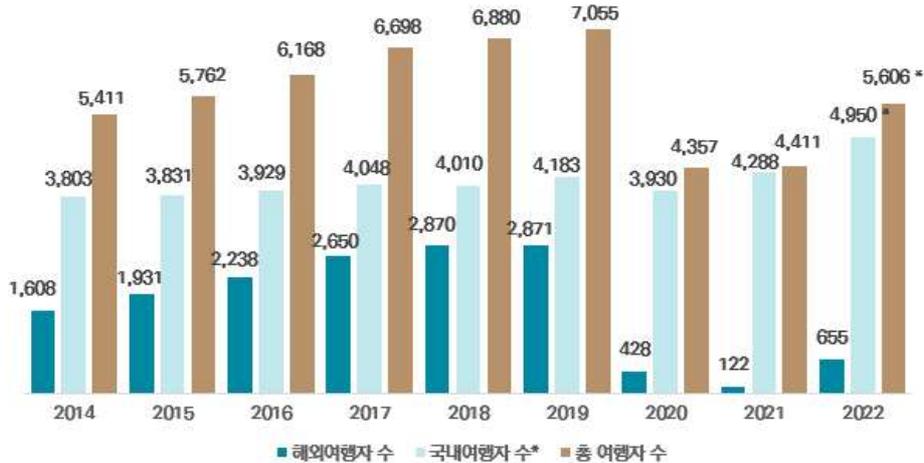
4) RPK는 항공기의 비행 구간의 유상 여객(좌석) 수에 비행 구간 거리를 곱한 합계로 항공사의 여객 수송실적을 나타내는 용어임(RPK=유상탑승객 수×운송거리(km)=유상탑승객 수×대권거리)

5) UNWTO(2023. 1. 17), “Tourism Set to Return to Pre-Pandemic Levels in Some Regions in 2023”, News Release

- 국내여행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2020년 감소하였으나, 해외여행 수요를 일부 흡수하면서 2021년에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22년에도 증가 추세는 유지되고 있음
- 해외여행자 수는 2022년에 2019년 대비 23% 수준(655만 명)으로 회복하였음

〈그림 1〉 우리나라 여행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주: 1) 2018년부터 국민여행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2018~2022년 국내여행자 수는 '15세 이상 전 국민 수×여행 경험률'로 산출함

2) $\{(국내\ 여행자\ 수 - 국내선\ 여객\ 수) / 국내\ 여행자\ 수\}$ 의 3개년(2019~2021년) 평균=26.6%

3) 2022년 국내여행자 수(4,950만 명)=2022년 국내선 여객 수(36,328,296)/(1-26.6%)

자료: 「한국관광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2017)」 각 연도; 「국민여행조사(2018~)」 각 연도; 「항공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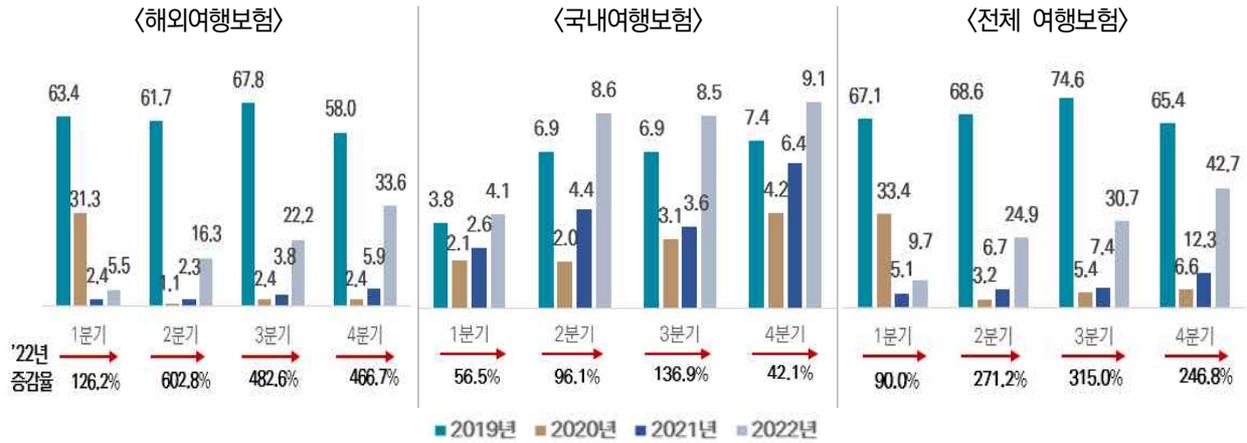
○ 우리나라 여행보험 시장은 여행자의 증가와 함께 회복되고 있지만, 해외여행자 수의 회복이 더딘 관계로 전체 여행보험시장 규모 회복에는 한계가 있음⁶⁾

- 2022년 국내여행보험의 가입은 30만 3,219건으로 2021년(17만 91건) 대비 78.3%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24만 9,655건)보다도 21.5% 증가한 수치임
- 2022년 해외여행보험의 가입은 77만 6,542건으로 2021년(14만 4,995건) 대비 435.6% 증가하며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9년(250만 8,135건) 대비 약 30% 수준에 그침

6) 우리나라 여행보험 가입 실적은 상위 6개 사의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2019년 기준 전체 여행보험 시장의 90.2%를 차지하고 있어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림 2〉 우리나라 여행보험시장 분기별 추이

(단위: 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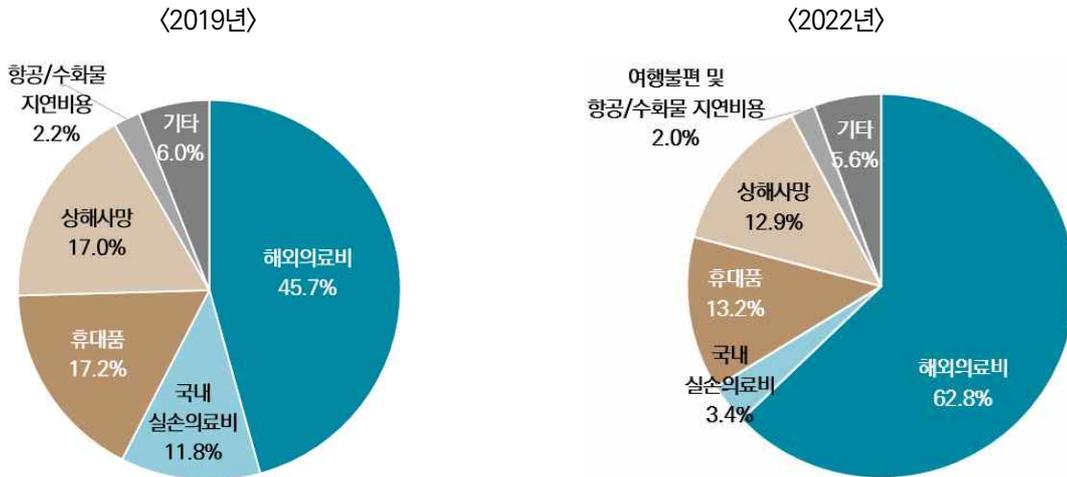
○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의료비 보장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여행보험에 대한 수요 변화가 관찰됨

- 해외의료비 보장의 보험료 비중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른 보장보다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한 여행객의 우려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해외여행보험 원수보험료에서 해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45.7%에서 2022년 62.8%로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요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중의 차이는 수요의 변화로 해석됨
 - 해외의료비 비중 증가로 인해 휴대품 및 상해사망 보장 비중은 감소하였음
- ‘중대사고 구조송환 비용’ 보장에 대한 보험료 비중도 2019년 1.1%에서 2022년 1.7%로 약 0.6%p 증가한 것도 여행자의 보험에 대한 수요변화로 보여짐⁷⁾
- 글로벌 여행보험시장에서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여행자들의 보험수요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의료 응급상황, 검역 비용, 여행 중단·취소 및 지연과 같은 사건들이 점점 더 보편화됨에 따라 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⁸⁾

7) 2019년에 미국 그랜드캐년에서 한국인 20대 남성의 추락사고 발생 후 현지에서 국내로 이송하는데 필요한 에어 앰블런스 비용이 2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 이후, 해외여행보험의 ‘중대사고 구조송환 비용’ 보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8) ITIJ(2022. 7. 1), “Examination of the US travel insurance market”; <https://www.itij.com/latest/long-read/examination-us-travel-insurance-market>

〈그림 3〉 해외여행보험 보장별 보험료 비중 변화



자료: 6개 손해보험회사 통계

○ 손해보험회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되고 있는 보장 수요를 발굴·반영하며 여행보험을 개선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음

- 해외의료비 등에 대한 수요 증가는 단순히 재무적 손실 보상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직접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
 - 소비자들의 수요가 사후적으로 보험금을 받기보다는 보험회사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⁹⁾
 - 미국의 AIG Travel은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인 New Frontier와 제휴하여 여행 중에 제한적인 환경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¹⁰⁾ 이는 여행 특성상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보다는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저개발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여행자가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으므로, 원격 의료서비스가 여행자 보호에 더 적절할 수 있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도 소비자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여행보험에서는 여행자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전화 통화로 현지 의료기관이나 대처방안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있지만,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상품은 없음
 - 원격 의료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규제적 한계가 있지만, 현지 의료기관과 제휴하여 현지에서 직접 대면·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9) Financial Times(2018. 8. 7), "Identity crisis: the insurers moving away from insurance"

10) Forbes(2022. 6. 4),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elemedicine And Travel Insurance"